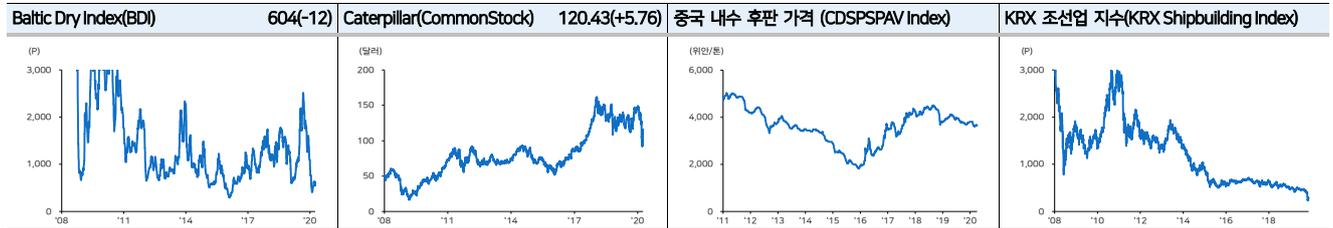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9	20E	19	20E	19	20E
현대중공업지주	3,737.8	18.4	229,500	8.3	-13.6	-29.5	-32.1	10.3	11.3	0.5	0.4	4.6	3.8
한국조선해양	5,711.4	16.4	80,700	5.4	-24.2	-36.7	-36.2	26.6	24.3	0.5	0.5	1.9	1.8
삼성중공업	2,668.1	16.7	4,235	4.6	-30.6	-40.9	-41.7	-2.5	-29.2	0.5	0.5	-16.0	-0.5
대우조선해양	1,554.5	11.3	14,500	4.7	-34.7	-45.9	-47.9	23.2	17.9	0.4	0.4	1.7	2.1
현대미포조선	1,190.3	11.7	29,800	4.6	-18.4	-32.4	-35.3	13.8	14.3	0.5	0.5	3.7	3.7
한진중공업	369.3	20.7	4,435	0.8	-6.3	-8.3	-11.0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2,032.4	17.9	20,850	2.7	-19.7	-38.1	-38.8	9.3	12.0	1.7	1.6	19.2	1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38.9	20.0	20,150	3.3	-28.5	-41.8	-42.5	8.3	9.2	0.4	0.4	4.9	4.7
LIG넥스원	442.2	4.8	20,100	4.1	-23.9	-38.8	-36.4	N/A	41.9	N/A	0.7	N/A	1.6
현대로템	1,020.0	3.3	12,000	1.7	-13.0	-20.3	-23.1	-5.5	-134.9	1.2	1.3	-19.2	-1.1
현대엘리베이터	1,517.7	24.2	55,800	2.0	-2.8	-14.8	-18.3	30.6	18.8	1.6	1.5	5.0	8.1
두산중공업	949.3	7.3	3,750	0.8	-24.7	-32.2	-34.4	-10.5	20.7	0.3	N/A	-3.4	N/A
두산밥캣	2,145.3	24.6	21,400	5.2	-24.8	-36.6	-37.7	7.1	6.9	0.5	0.5	7.8	7.6
두산인프라코어	892.0	15.5	4,285	7.0	2.8	-18.7	-22.8	3.4	3.6	0.4	0.3	12.6	9.6
현대건설기계	339.8	9.7	17,250	5.8	-16.9	-41.3	-42.3	5.0	5.1	0.3	0.3	5.1	5.5
현대일렉트릭	245.1	5.6	6,800	4.8	-25.8	-37.3	-41.1	-1.4	-11.1	0.3	0.4	-14.2	-3.4
하이록코리아	153.8	44.7	11,300	7.6	-19.0	-35.4	-41.1	N/A	N/A	N/A	N/A	4.5	N/A
성광벤드	173.9	17.7	6,080	2.0	-25.7	-40.4	-41.3	23.4	21.3	0.4	0.4	2.4	2.6
태광	191.3	15.4	7,220	3.0	-19.6	-28.9	-29.2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8.9	3.7	7,000	2.0	-28.7	-35.8	-33.6	11.8	6.3	2.0	1.6	19.7	28.6
한국가본	258.0	12.0	5,870	0.7	-25.9	-27.3	-25.0	21.3	7.7	0.8	0.8	4.3	10.0
태웅	102.8	3.8	5,140	-0.4	-26.1	-36.6	-42.2	N/A	N/A	N/A	N/A	N/A	N/A
HSD엔진	100.5	2.7	3,050	2.9	-18.4	-32.2	-31.8	-4.1	29.3	0.5	0.6	-11.1	1.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ensions rise as Japan and South Korea fail to resolve yard row at WTO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하에 화상 회의를 열어 팬데믹 이슈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곧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에 관한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고 보도됨. 한편 회의를 주관한 EU측과 일본은 조선업이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는 판단으로, WTO가 국제 보조금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하길 원한다고 밝힘. (TradeWinds)

선박 운항 수명 단축 전망

선박의 운항 수명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짧아질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의 운항 수명은 더 이상 기술 및 소비재처럼 선박 가격을 상각하는 데 쓰이는 표준 기간인 25~30년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운항 코스트는 상승하게 되고 해운 산업의 투기적 성격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선사 통합 불가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수많은 소형 선사들은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보도됨.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해운 선사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25~60% 하락했으며 필연적으로 업체들의 통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사간 합병이 해운 업계 전체를 위해서 이롭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Russia insists on US and Saudi Arabia joining in output cuts

러시아 정부는 원유의 초과 공급에 따른 급격한 유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 감산 결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도됨. 러시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감산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 감산 규모는 유가 급락 전 산유국들의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Upstream)

운임 폭락 못 막으면 '컨'선 사 적자 눈덩이

4월 5일 기준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된 스케줄은 212건에 달한다고 보도됨. 항차 취소로 인해 상위 15개 선사들이 수송하지 못하는 화물 때문에 금년 중 입을 손실이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됨. Moody's에 따르면 선사들의 올해 EBITDA가 6%~1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오일뱅크, 정기보수 앞당겨 시행 "시황 악화 따른 손실대응"

최근 임원급여를 20%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현대오일뱅크가 통상 하반기 진행했던 정기보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지주는 공시를 통해 제2공장 가동을 오는 8월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힘. 제2공장은 하루 36만배럴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능력의 3분의2를 차지한다고 보도됨. (이데일리)

본 조분석적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분석적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분석적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